

책의 해에 치러진 사상최대 도서축제

사진으로 보는 '93서울도서전의 현장



온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인 계절 5월.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KOEX(한국종합전시관)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7일 개막했던 '93서울도서전은 한결 편리해진 교통편과 가뻐한 봄기운 탓인지 국내 최대의 '책의 향연'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연일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도서전 사상 최대의 1700여사가 참가하고 최대의 부스가 마련됐음에도 전문 전시관답게 정갈하고 규모있게 꾸며진 내부에는 각 출판사의 개성있는 연출과 책의해조직위원회가 마련한 볼 만한 기획전들로 빛났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1000여종의 잡지를 한자리에 모은 '잡지 광장', 목판본 활자본을 거쳐 전자출판 멀티미디어로 이어지는 출판의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만남전', 재고도서 가운데 우수하다고 평판받았던 책들을 할인해 파는 '구간명저 판매코너', 그리고 시대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출판 첨단미디어 코너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관람객의 발길을 놓아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도서전의 의미를 깊게 했던 것은 외국 출판사들의 참가. 낯선 섬처럼 외국인들이 직접 나서 자국책을 소개하는 모습은 서울도서전이 국제도서전으로 명성을 가질 미래가 멀지않았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53만이라는 최대의 관람객, 최대의 판매실적 등 갖가지의 진기록과 화제를 뿌리며 책의해를 맞아 열렸던 '93 서울도서전은 지난 13일 놀라움과 아쉬움 속에서 막을 내렸다.

—취재·정혜옥
사진·김홍진

- ① 서울도서전이 열렸던 한국종합전시관 태평양관 입구.
- ② 호주 대사관에서 마련한 전시대. 이번 서울도서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6개국에서 각각 독립부스를 마련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 ③ 한국의 아생화, 한국의 곤충 등 책으로 퍼내 많은 화제를 모았던 생태학 사진들을 포스터와 엽서로 제작해 전시·판매했던 현암사 전시대.
- ④ 올해도 역시 큰 관심을 모았던 CD-ROM, CD-I 전시대.
- ⑤ 한 아동도서 코너에서 아버지와 함께 책을 펼쳐보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엔 호기심이 가득하다.
- ⑥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전시분위기로 사상 최대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던 한국종합전시관 외관.
- ⑦ 책의해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기념홍보물' 코너. T셔츠, 라이터, 공중전화카드, 책받침대 등에 인쇄된 책의해 로고가 선연하다.
- ⑧ '93 대전엑스포를 미리 홍보하기 위해 엑스포의 마스코트인 '꿈돌이'도 전시회의 한 코너를 차지했다.

